"김, 10장 단위 포장·보관법 개선을"

외지인 500명 설문… 소비 확대 위해
고품질 김 생산 브랜드화도 추진해야

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포장 제품 개발과 보관 방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소장 임여호)가 최근 외지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김 소비 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장 단위의 소포장을 희망한 응답자가 46%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28.4%는 10~20장 단위를 원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0장 단위가 좋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김 보관 방법으로 냉장고 보관이 54%로 절반을 넘었으며 다음은 '신문지 활용'(22%), 김 보관 전용 상자(13.4%), 랩 이용(7%), '별도 보관방법이 필요없다'(3.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70.8%가 '사용하다 남은 김을 버린 경우가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는 29.2%에 그쳐 소포장과 보관방법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호하는 김의 형태로 각각 25%와 21%가 김밥용 김과 즉석구이 김을 들었으며 돌김과 재래김(15%), 도시락김(12%), 파래김(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소비는 월 10장 이내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74%가 한달 30장 이내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응답자가 고흥산 김의 품질을 높게 평가(65.6%)했으며 가격은 다소 높거나 낮다는 응답이 30% 안팎으로 비슷했다.

고흥해양사무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고흥산 참김의 소비확대와 규격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고품질 김 생산과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상사화 벽화 보셨나요"

상사화(相思花) 자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광군 불갑사 일대에 상사화 벽화가 그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상사화 벽화는 원광대 미술연구소 김재민 교수에 의해 마을 입구나 도로변 건물, 벽면에 제작되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함평 가선거구 재선거
자천타천 5~6명 거론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함평군의회 '가 선거구(함평읍 손불·엄다·신광면)' 재선거에 자천타천으로 5~6명의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김청수, 이재식, 임용수씨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이화동씨 단독으로 지난 1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1~2명이 출마의지를 갖고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오는 15일을 전후해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전문성과 도덕성, 민주적 리더쉽, 개혁성 등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민주의식을 갖춘 소신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당은 당공헌도, 전문성, 당선가능성 등을 놓고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장성고-日 쇼후주꾸고 10년째 우정의 한마당

상호교류 방문… 관악 연주·민속 체험 등 우의 다져

장성고등학교(교장 반옥진)가 일본 고교와 10년째 상호 교류 방문을 통한 국제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사진〉

지난 10일 장성고에서는 일본 아오모리현 쇼후주꾸 고교생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류 연주 및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쇼후주꾸 학생들은 만돌린으로 '후니쿠리 후니쿠라', '폭풍의 언덕'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서양음악에 '과수원 길', '아리랑', '도라지' 등 우리 음악을 연주했다.

이에 화답해 장성고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간에 연마한 고전기타와 사물놀이, 수화노래, 강강술래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특히 양교 학생들이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를 펼쳐 교환 방문을 통해 쌓은 우정을 확인했으며 일본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도의 정과 맛을 실감했다.

장성고는 지난 1997년부터 쇼후주꾸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학생들의 교환방문을 통해 양국 청소년들간 교류 폭을 넓혀왔다.

반옥진 교장은 "이번 교류연주회를 통해 한·일 청소년들이 평화와 공존의 21세기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장성고가 이제 실력면에서 전국에 널리 알려진 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국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쇼후주꾸 고교 대표학생인 미카미 사치카(2년)양은 "장성고가 기숙사는 물론 골프연습장, 검도장 등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강진 영랑생가·신안 김환기 가옥
국가 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지정

문화재청은 10일 강진 영랑생가〈사진 왼쪽〉와 신안 김환기 가옥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했다.

시인 김윤식이 태어난 영랑생가는 전형적인 부농의 생활공간으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 가옥구조로 건립됐다.

김환기 가옥은 김 화백이 어린 시절과 해방 후 작품활동을 한 곳으로 좌측에 안채, 우측에 화실이 배치돼 있다. 이 가옥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작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20세기 초 전통가옥이 편의를 중시한 생활공간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연합뉴스

화순 산양삼 채종포 조성

2010년까지 남면 군유림 12ha에

화순군이 산양삼(山養蔘) 채종포를 조성한다.

화순군은 남면 내리 군유림에 올해부터 2010년까지 5억 원을 들여 12ha 규모의 산양삼 채종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첫해인 올해 3ha의 채종포를 조성해 5년생 15만 뿌리, 2년생 24만 뿌리 등 총 39만 뿌리의 산양삼을 심어 2009년부터 산양삼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산양삼을 화순의 대표 특산물로 키우기 위해 이미 지난 2월 '산죽(山竹) 산양삼'이라는 고유 브랜드 개발까지 마친 상태다.

화순군 동복면 모후산은 고려인삼을 최초로 재배한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동복삼은 조선시대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순군은 옛 명성도 되찾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동복삼 복원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산양삼은 산삼이나 인삼씨를 적합한 환경의 산에 심어 자연적으로 자라게 해 장뇌삼으로도 불린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보성 녹차 활성화 방안 토론회

12일 군청 회의실 농림부 장관 등 참석

보성군은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녹차산업의 발전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 녹차관광 진흥 등을 통해 보성녹차산업의 발전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임상규 농림부장관을 비롯해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신중식 대통합민주신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김영만 농림부 농산물 유통국장) ▲'보성군 녹차산업의 현황과 전망'(김재휴 보성군 부군수) ▲'녹차산업 이제 새로운 생각과 접근이 필요할 때'(백상철 동원 F&B 마케팅 상무) ▲'녹차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제고 방안'(박문호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가 있게 된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